

“생물산업, 전남 미래 먹을거리로 키우겠다”

바이오산업 육성 사령탑 안기홍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보다는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섭니다. 전남의 생물바이오산업이 미래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인식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난 9월 취임한 안기홍(59)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공직자로 35년을 지냈던 그가 전남의 생물·바이오산업을 책임질 수장이 됐다.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투자 유치, 관광,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다보니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안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식품산업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 6개 센터를 찾

35년 공직 노하우 쏟아 부을것

6개 센터간 4차 산업혁명 접목

융복합·빅데이터 생산 추진

아 우선 연구원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힌트를 얻어 센터 간 융·복합과 빅데이터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역시 산하 6개 센터가 있지만, 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됐을 뿐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다듬어가는 중이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한 센터의 경쟁력을 감안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안 원장의 말이다.

“천연 생물기반시설 및 인제, 첨단 바이오

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및 인재를 갖춘 전국 유일 지자체인 전남입니다. 현재의 수요를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연구센터 간 협업 연구를 촉진시켜 새로운 융복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나누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과 전남·광주의 대학, 광주전남연구원 등과 공유한다면 성과가 클 겁니다.”

생물·바이오산업을 전남의 주력산업으로 키우는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이어 1차년도에는 “우선 전남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지난 1981년 목포시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2005년 여수시 관광과장, 2009년 영광군 지역경제과장, 2014년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2015년 전남도 관광과장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애인·소외계층 돕기 앞장 담양다이너스티CC

한마음대축제 500만원 후원

임직원들은 복지시설서 봉사

차성만 담양다이너스티CC 대표이사(사진 오른쪽)는 최근 담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담양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를 방문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담양다이너스티CC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황세원 담양다이너스티CC 회장이 담양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5월에 열리는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와 11월 담양군 장애인 한마음대회 등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담양다이너스티CC 임직원들의 자발

적인 후원활동도 눈에 띈다. 캐디와 직원 등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봉사활동 단체 ‘다사랑 나눔회’는 사회 복지시설인 ‘시온원’과 ‘사랑의 집’ 등을 찾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은 매달 자신들의 급여에서 1만원씩을 모아 2008년부터 저매결연을 맺은 학교와 저소득 가정 등에 후원, 장학금과 생계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차성만 대표이사는 “지역민들의 응원과 도움이 있어 담양다이너스티CC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지역을 위해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자 전 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이라며 “올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은선·사진)이 지난 10일 열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감염병관리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발생과 콜레라 재출현에 신속히 대처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 감염병 조직 전문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증원’ 지침 마련에 일조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진드기, 모

기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 관리와 관련, 지역 내 매개체 분포를 조사하고 아열대성 기후화에 따른 해외 유입 가능 병원체를 모니터링해 선제적

예방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감염병 감시분야에서 선도적인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은선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염병에 의한 재난을 삼켰다”며 “철저한 감염병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책을 발굴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박항서 전 상무 감독, 광주 고령정보산업학교서 축구재능 기부

박항서 전 상무 감독과 경남 FC의 공격수 배기종이 지난 14일 고령정보산업학교를 찾아 ‘박항서 리더십 축구 강연회’를 열었다.

배기종과 제주에서 활약한 김태민 등과 고령정보산업학교를 찾은 박 감독은 실수 이후 극복법과 축구와 인생에서의 협동심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당시 수석 코치로서의 경험과 프로 축구단 감독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주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김태민의 권유로 행사에 참가한 배기종은 “축구 선수들이 이런 뜻 깊은 재능 기부를 펼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감독은 “지난달 전주에 이어 산업학교 방문은 2번째다. 학생들이 다른 어떤 다른 활동보다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은퇴 선수들과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퍼트 주한 미대사 “예쁜 딸 태어났어요”

아들 세준이여 둘째 득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부부가 둘째를 얻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글로 “딸이다!!! 오늘 밤에 드디어 둘째가 태어났어요!”라면서 둘째 출산 소식을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산모는 건강해요. 엄마, 아빠로서 아주 행복합니다”라면서 “(첫째) 세준이는 아직 모르고 집에서 쿨쿨 자고 있어요”라면서 기쁨을 표시했다.

또 영문으로도 “딸이다! 산모와 아기는 아주 건강하다!(It's a girl! Mom & baby are great!)”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출산 직후 병원에서 누운 채 둘째를 안고 있는 아내 로빈 리퍼트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



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특강에도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로빈 여사의 출산은 서울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리퍼트 대사 부부의 첫째인 아들 제임스 윌리엄 세준(Sejun) 리퍼트 군은 지난해 1월 한국에서 태어났다.

리퍼트 대사는 당시 사주를 보고 아들에게 한국식 중간 이름을 지어줬다고 밝혀 화제가 됐으며, 세준 군의 백 일잔치와 돌잔치도 한국식으로 치른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산악협회, 장애인복지회 쌀 전달



광주시산악협회(회장 임승진)는 연말을 앞두고 지난 14일 광주 시 남구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광주시산악협회 제공>

전남여성플라자 일·가정양립개선방안 포럼



전남여성플라자는 최근 전남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여성일자리지원 유관 기관 종사자 및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일·가정 양립 현황 및 개선방안’ 포럼을 열었다. <전남여성플라자 제공>

송원대, STX엔진과 기자재 활용 협약



송원대(총장 최수태)는 15일 대학 회의실에서 STX엔진(연구소장 김용운)과 시설·기자재 공동 활용 및 기술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송원대 제공>

광주보호관찰소, 사랑의 집수리 봉사



광주보호관찰소(소장 강호성)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 주택 2곳을 선정해 ‘사랑의 집 수리’를 마치고 15일 준공식을 열었다. <광주보호관찰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양동회(전 법무부 교정국 광주교도소 근무)·김경순(전 전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씨 차남 요섭(목포해양경비안전서)군 정성숙씨 장녀 경화(여수종합병원 간호사)양=19일(토) 오전 11시 30분 나주시 영산로 나주교회 본당 1층, 문의 010-4276-1864.

▲임재수씨 삼남 용섭군 조상삼(전 전남도 보건과장·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문영미씨 차녀 정민양=20일(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원동742 파티오나인 5층 채플룸, 문의 010-7767-8999.

▲김동복(NH농협은행 동광주지점장)·문영숙(담양농협 상무)씨 장남 경도군 김광호·김향욱씨 장녀 규리양=26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담양 피로연=18일(금) 오후 5시 백제회관.

▲강대만·김일순씨 차남 백원군 김희식·이옥희씨 장녀 신정양=19일(토) 오전 11시40분 광주시 서구 광전동 수아비스웨

당컨벤션(구 경복궁) 1층 로즈룸.

종친회

▲진주강씨 통계공 광주전남 총회(회장 강기술) 정기총회=25일(금) 오전 11시30분 총회관 4층 회의실 062-228-3368.

향우회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김보근) 이사회 및 사무실 개소식=25일(금) 광주시 서구 매월2로53(공구 8동 204호) 문의 062-603-2795.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

원, 수시 입소가 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중독문제(알코올·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당사자나 가족 대상 무료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비공개 무료상담 제공(www.gsgacc.or.kr) 문의 062-714-123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지매·중증·노환), 정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 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둠 수업):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 강좌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 강좌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과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설원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부음

▲홍육건씨 별세 조문택시 모친상 이

봉녀씨 시모상=발인 16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김영경씨 별세 최정웅·철호·미경·미선·해경씨 모친상 조문택시 시모상 김영태·김선환·장명수씨 빙모상=17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201호 故김철수 남(남/82세)</p> <p>子/子婦: 김수원/이미숙, 광원/박지혜, 중원</p> <p>女/婿: 김예원/강민수</p> <p>孫: 김동희, 지숙, 재민, 강 원</p> <p>• 발 인: 11월 16일</p> <p>• 장 지: 장성남면 선영</p>	<p>401호 故윤미자 남(여/76세)</p> <p>子/子婦: 박기침/최 숙</p> <p>女/婿: 박희란/오상훈, 미란</p> <p>孫: 박수민, 성수, 오현영, 현수</p> <p>• 발 인: 11월 16일</p> <p>• 장 지: 영락공원</p>
<p>102호 故장상순 남(여/96세)</p> <p>子/子婦: 이경현/이정애, 경복/노은자</p> <p>孫: 유경희, 상관, 이수미, 시중, 영훈, 수연, 장지혜, 광식</p> <p>• 발 인: 11월 16일</p> <p>• 장 지: 영락공원</p>	

孝 金호장례식장 문 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